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 인식에 따른 진로개발역량, 학업적 특성 차이

연은모¹, 최효식^{2*}

¹영남대학교 교양학부, ²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Career Developmental Competency and Academic Outcomes according to Parent-Adolescent Contact Frequency

Eun Mo Yeon¹, Hyo-Sik Choi^{2*}

¹College of Basic Studies, Yeungnam University

²Department of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요약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 학생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특징을 갖는 유형을 탐색하고, 탐색된 유형에 따라 초, 중, 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2018)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잠재프로파일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초, 중, 고 학생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초등학교 6개 잠재계층(자녀 학교생활 대화 상, 자녀 상-부모 학교 생활 대화 상, 자녀 하-부모 하, 자녀 상-부모 상, 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자녀 하-부모 중), 중학생 6개 잠재계층(자녀 하-부모 하, 자녀 중-부모 중, 자녀 상-부모 하, 자녀 상-부모 중상, 자녀 하-부모 상, 자녀 최상-부모 최상), 고등 학생 7개 잠재계층(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자녀 상-부모 하, 자녀 중-부모 중, 자녀 중-부모 상, 자녀 하-부모 하, 자녀 상-부모 중상, 자녀 최상-부모 최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초, 중, 고 모두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과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 학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부모-자녀 모두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한 집단과 부모보다 자녀가 인식한 대화 빈도 수준이 높은 집단의 진로개발역량과 학업적 특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초, 중, 고 학생은 부모와의 대화 빈도를 부모와 다르게 인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가 진로개발역량과 학업적 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classify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s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and to examine differences betwee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academic outcomes according to perceptual differences. Data of elementary school to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School Career Education Survey (2018) were used, and latent profile analysis (LPA) was utilized to explore the parents' and their children's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The perception of parents' and their children's contact frequency was classified into six groups i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nd seven groups in high school.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job understanding, career exploration, and career design and reparation) and academic outcomes (autonomous learning, motiva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classified groups related to contact frequency significantly differed. In general, groups who reported a higher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than parents showed higher vocational identity and better academic outcomes. This result implies that perceived contact frequency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can differ by school level, and its differences can be related to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academic outcomes of adolescents.

Keywords : Parent-Adolescent Contact, Discrepancy,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utonomous Learning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Corresponding Author : Hyo-Sik Choi(Chuncheon National Univ. of Education)

email: s970218@cnu.ac.kr

Received December 1, 2020

Accepted March 5, 2021

Revised December 21, 2020

Published March 31, 2021

1. 서론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1] 부모의 양육 특성은 자녀 발달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양육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과정이기 때문에 양육 특성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경험적 연구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다[2-3]. 특히 부모와 자녀의 양육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는 행동문제[4-5], 자아개념[6], 심리적 건강[7], 학교 참여 및 학업성취[8] 등의 자녀 발달 특성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 간 양육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감소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녀 발달 과정의 보호 및 촉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 인식 차이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부모-자녀 간 양육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본 다수의 연구가 변인-중심적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부모-자녀 간 양육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자녀의 발달 특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지만, 부모-자녀 간 양육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둘째, 부모-자녀 간 양육 특성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한 연구들이 특정 연령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발달 특성상 차이가 있는 초, 중, 고 학생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육 특성을 대표하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양적 특성 중 하나인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 중, 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와 자녀 간 인식 차이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부모와 자녀의 중다 정보원에 기초한 정보는 부모 또는 자녀의 단일 정보원에 기초한 정보에서 제공할 수 없는 측면을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 재인용]. 부모와 자녀 간 양육에 대한 인식 차이는 가족 구성원의 가족 인식에 대한 고유한 관점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9]. 부모와 자녀는 종종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다른 인식을 보고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10]. 부모-자녀 간 인식 차이는 스트레스 및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청소년 발달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재인용].

부모-자녀 간 인식(지각) 차이는 자녀의 행복감[12], 불안[13], 부모지지[2], 진로지지[14], 의사소통[15], 갈

등 정도[16], 부모 희생[17], 교육포부수준[18] 등에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7]. 메타분석 결과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부모 양육 행동에 대한 인식의 일치 정도는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자녀는 부모보다 부모의 양육 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9].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부모보다 부모의 행동을 통제 수준은 높지만, 지지 수준 및 상호작용은 더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11 재인용, 20 재인용]. 긍정적 양육 행동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 인식의 잠재프로파일분석 활용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어머니의 경우 청소년이 긍정적 양육 행동을 더 높게 인식한 집단, 어머니가 더 높게 인식한 집단, 유사한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되며, 청소년-아버지의 경우 청소년이 긍정적 양육 행동을 더 높게 인식한 집단, 아버지가 더 높게 인식한 집단으로 구분되며, 잠재집단에 따라 심리적 특성 및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 지표 중 하나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사회성[21], 친구관계[22], 교사관계[23], 스마트폰과몰입[24], 우울[25], 자아존중감[26], 자기효능감[27] 등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진로개발역량 및 학업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학습동기[28-30], 학교적응[31-32], 자기주도학습[33], 학업성취[34-35]의 학업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개방적이고 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부모-자녀 간 유대감, 신뢰감을 향상함으로써, 긍정적 자기 개념 형성을 촉발할 뿐 아니라[36], 학업 장면에 몰입하는 힘을 증진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진로장벽[37], 진로포부[38], 진로체제감[3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40] 등의 진로개발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의 양적변인 중 하나인 대화 시간은[41] 의사소통의 질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 중 하나이다[42]. 부모와의 대화 빈도 및 대화 시간은 진로개발역량[43] 및 학업성취[44]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기초한 구

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초, 중, 고 학생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 2) 확인된 유형에 따라 초, 중, 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2018)'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는 2018년 6월 12일~7월 20일 동안 수집되었으며, 초등학교 6,040개, 중학교 3,213개, 고등학교 2,360개 학교가 참여하였다[45].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변인의 응답 자료가 있는 부모와 자녀 17,576쌍(초등학생 5,586명, 중학생 5,811명, 고등학생 6,179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

초, 중, 고 학생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나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꿈), 학교 및 학과 선택, 공부(학습)와 성적 영역의 4문항을 활용하였다. 부모와 자녀가 각자 4문항에 대해 ① 두 달에 1회 이하 ② 월 1~2회 정도 ③ 주 1회 정도 ④ 주 2~3회 정도 ⑤ 거의 매일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4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부모 초 $\alpha=.808$, 중 $\alpha=.881$, 고 $\alpha=.897$, 자녀 초 $\alpha=.787$, 중 $\alpha=.858$, 고 $\alpha=.869$ 이다.

2.2.2 진로개발역량

초, 중, 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이해와 사회성(6문항)', '직업 이해(5문항)', '진로탐색(5문항)', '진로설계와 준비도(초, 중 4문항, 고 5문항)'의 4개 하위 요인을 확인하였다. 초, 중, 고 학생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초등학생용 조사지에 기초하여 문항 예시를 제시하면, 자기이해와 사회성 '나는 가족, 친구들에게 소중한 존재이다.', 직업 이해 '나는 직업이 필요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진로탐색 '나는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찾아본 적이 있다.', 진로설계와 준비도 '나는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자기이해와 사회성 초 $\alpha=.845$, 중 $\alpha=.906$, 고 $\alpha=.910$, 직업 이해 초 $\alpha=.794$, 중 $\alpha=.881$, 고 $\alpha=.890$, 진로탐색 초 $\alpha=.808$, 중 $\alpha=.880$, 고 $\alpha=.928$, 진로설계와 준비도 초 $\alpha=.832$, 중 $\alpha=.903$, 고 $\alpha=.940$ 이다.

2.2.3 자율적 학습 동기

초, 중, 고 학생의 자율적 학습 동기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5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초, 중, 고 학생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나는 무언가를 배우는 것이 즐겁다.', '나는 공부에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5]. 역채점 문항은 역코딩한 후 사용하였으며,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초 $\alpha=.596$, 중 $\alpha=.525$, 고 $\alpha=.543$ 이다.

2.2.4 자기주도학습

초, 중, 고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5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초, 중, 고 학생이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 중 하나에 응답하였다. 문항은 '공부할 때 먼저 무엇부터 할까 스스로 계획을 세운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알아낸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5]. 내적일관성 신뢰도는 초 $\alpha=.879$, 중 $\alpha=.923$, 고 $\alpha=.915$ 이다.

2.3 분석 방법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MicroData Integrated Service)에서 '초·중등 진로 교육 현황조사(2018)' 데이터를 신청한 후 사용하였으며, Mplus 8.3,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초, 중, 고 학생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잠재계층을 탐색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확인된 잠재계층에 따라 초, 중, 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을 사용하였다[46].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자녀 및 부모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은 초등학교 5,586명(31.8%), 중학교 5,811명(33.1%), 고

등학교 6,179명(35.2%)이며, 학교규모는 대규모 6,621(37.7%), 중규모 6,913(39.3%), 소규모 4,042(23.0%)이며, 성별 남학생 8,937(50.8%), 여학생 8,639(49.2%)이며,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응답한 부모는 아버지는 2,149명(12.2%), 어머니 15,427명(87.8%)이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7,576)

Variables	Category	N	%
School level	Elementary school	5,586	31.8
	Middle school	5,811	33.1
	High school	6,179	35.2
Campus size	Large	6,621	37.7
	Middle	6,913	39.3
	Small	4,042	23.0
Adolescents' gender	Male	8,937	50.8
	Female	8,639	49.2
Relatedness	Father	2,149	12.2
	Mother	15,427	87.8

3.2 대화 빈도 인식 차이 잠재계층

초, 중, 고 학생이 지각한 부모와의 대화 빈도, 부모가 지각한 자녀와의 대화 빈도에 기초한 잠재계층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자녀가 인식한 (1)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 관계 등) (2) 나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꿈) (3) 학교 및 학과 선택 (4) 공부(학습)와 성적, 부모가 인식한 (5) 자녀의 학교생활(자녀의 친구 관계, 선생님과 관계 등), (6) 자녀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꿈), (7) 자녀의 진학 및 학과 선택, (8) 자녀의 공부(학습)와 성적 순이다.

Table 2와 같이 적합도 지수, 잠재계층별 사례수의 비율, 잠재계층의 고유성, 해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6개의 잠재계층 모형, 고등학생은 7개의 잠재계층 모형이 가장 좋은 모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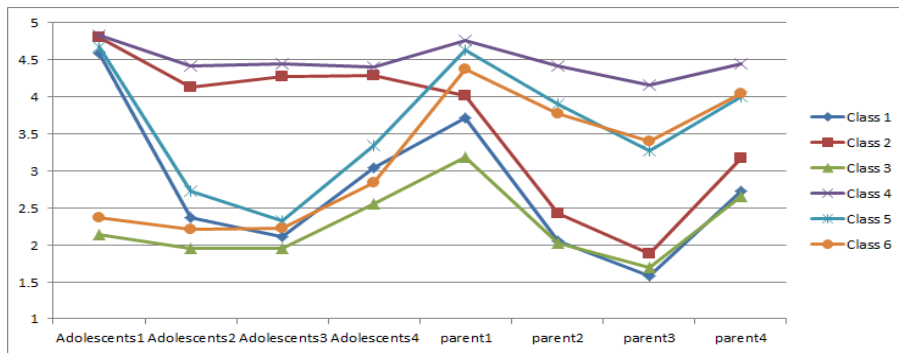
초등학생의 6개 잠재계층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122명(20.1%)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가 지각한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 관계 등) 관련 대화 빈도만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이 있어서 '자녀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664명(29.8%)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는 학교생활, 진로, 공부(학습)와

성적 관련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의 경우 학교생활 관련 대화 빈도만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상-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617명(11.0%)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하-부모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986명(17.7%)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상-부모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839명(15.0%)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 관계 등) 관련 대화 빈도만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이 있어서 '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358명(6.4%)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는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하-부모 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중학생의 6개 잠재계층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782명(13.5%)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하-부모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406명(24.2%)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대화 빈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중-부모 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747명(12.9%)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는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녀 상-부모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354명(23.3%)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는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중간 이상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녀 상-부모 중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591명(10.2%)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는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하-부모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931명(16.0%)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대화 빈도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최상-부모 최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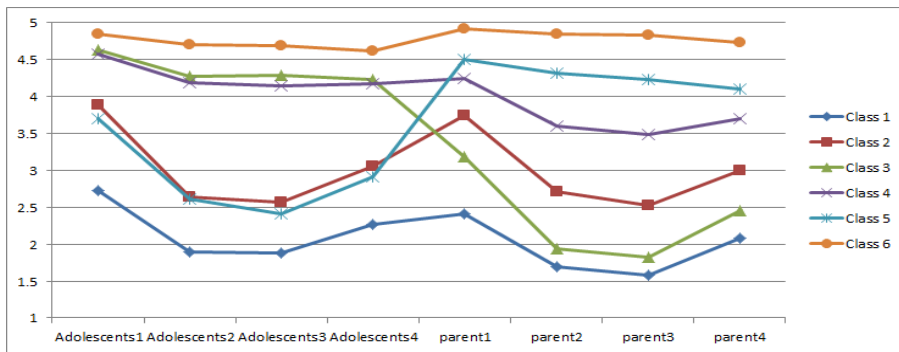
Table 2. Model summaries for latent profile models

Elementary school(6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class	7 class	8 class
AIC	138026.867	133958.182	131678.368	129940.155	128576.579	127476.666	126621.139
BIC	138192.568	134183.534	131963.373	130284.812	128980.888	127940.627	127144.752
SABIC	138113.125	134075.493	131826.732	130119.572	128787.049	127718.188	126893.714
Entropy	.830	.870	.833	.829	.850	.865	.852
LMR LRT(p)	.0000	.0000	.0000	.0008	.0070	.0000	.0152
BLRT(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lass 1(%)	62.1	17.1	27.2	13.2	20.1	19.9	17.8
class 2(%)	37.9	51.4	17.2	22.4	29.8	5.6	5.6
class 3(%)		31.5	28.3	16.5	11.0	15.1	8.1
class 4(%)			27.4	30.1	17.7	8.1	8.0
class 5(%)				17.8	15.0	29.3	26.2
class 6(%)					6.4	17.4	13.6
class 7(%)						4.6	16.1
class 8(%)							4.6
Middle school(6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class	7 class	8 class
AIC	137975.999	133601.732	129585.390	127908.494	126175.990	125131.629	124086.790
BIC	138142.687	133828.427	129872.093	128255.204	126582.708	125598.354	124613.523
SABIC	138063.244	133720.385	129735.451	128089.963	126388.868	125375.915	124362.484
Entropy	.869	.845	.860	.850	.867	.866	.865
LMR LRT(p)	.0000	.0000	.0000	.0004	.0000	.0099	.0002
BLRT(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lass 1(%)	53.3	34.4	21.6	9.4	13.5	12.6	8.1
class 2(%)	46.7	39.5	27.6	25.9	24.2	7.2	10.1
class 3(%)		26.2	20.8	18.6	12.9	13.8	9.6
class 4(%)			29.9	23.2	23.3	19.1	20.7
class 5(%)				22.9	10.2	22.3	12.8
class 6(%)					16.0	9.3	6.0
class 7(%)						15.7	19.8
class 8(%)							13.0
High school(7 class)							
	2 class	3 class	4 class	5 class	6 class	7 class	8 class
AIC	144180.502	138991.124	134646.753	132346.190	130043.256	128762.120	127629.633
BIC	144348.724	139219.907	134936.097	132696.094	130453.719	129233.144	128161.217
SABIC	144269.281	139111.864	134799.454	132530.852	130259.878	129010.703	127910.176
Entropy	.885	.868	.878	.869	.886	.874	.881
LMR LRT(p)	.0000	.0001	.0000	.0000	.0000	.0091	.0000
BLRT(p)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class 1(%)	55.5	21.8	33.8	17.4	17.3	10.2	14.5
class 2(%)	44.5	34.8	23.8	29.1	28.5	9.8	6.2
class 3(%)		43.5	13.6	24.3	9.3	21.3	9.5
class 4(%)			28.8	13.4	8.0	7.7	11.7
class 5(%)				15.8	13.0	15.1	6.7
class 6(%)					23.9	23.3	20.0
class 7(%)						12.6	19.0
class 8(%)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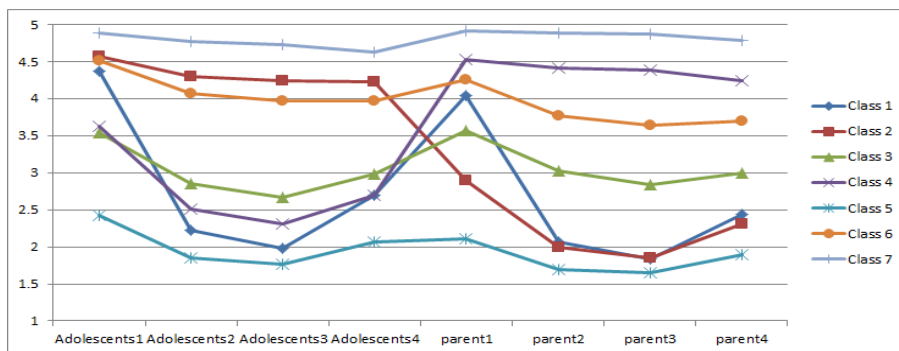
※ Class 1: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in school life, Class 2: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in general whereas by parent focused in school life, Class 3: low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general. Class 4: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general, Class 5: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school life, Class 6: low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but average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parents

Fig. 1. Profile plots (Elementary school)



※ Class 1: low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general, Class 2: average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general, Class 3: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but low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parent, Class 4: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but above-average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parent, Class 5: low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but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parent, Class 6: above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general

Fig. 2. Profile plots (Middle school)



※ Class 1: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school life, Class 2: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but low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parent. Class 3: average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general, Class 4: average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but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parent. Class 5: low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general, Class 6: above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children and above-average by parents, Class 7: above high perception of contact frequency by both parent and children in general

Fig. 3. Profile plots (High school)

고등학생의 7개 잠재계층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629명(10.2%)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가 공통으로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관련 대화 빈도만 두드러지게 높은 특징이 있어서 '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두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608명(9.8%)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는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상-부모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세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316명(21.3%)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대화 빈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중-부모 중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네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475명(7.7%)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는 대화 빈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중-부모 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다섯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932명(15.1%)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대화 빈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하-부모 하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여섯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1,442명(23.3%)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는 대화 빈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중상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상-부모 중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일곱 번째 프로파일은 전체의 777명(12.6%)

이 속하는 잠재계층으로, 자녀와 부모 모두 공통으로 대화 빈도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어서 '자녀 최상-부모 최상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3.3 잠재계층에 따른 초, 중, 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업적 특성 차이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 중, 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과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BCH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경우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과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 학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의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 모두 잠재계층 4(자녀 상-부모 상), 2(자녀 상-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이 잠재계층 3(자녀 하-부모 하), 6(자녀 하-부모 중), 5(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1(자녀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특성의 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 학습 모두 잠재계층 4(자녀 상-부모 상) 집단이 잠재계층 3(자녀 하-부모 하), 6(자녀 하-부모 중), 5(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1(자녀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mparisons (with the BCH procedure) across the six-class profiles (Elementary school)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47]	Class 1	1,122	4.420	.019	51.252*** (3,6,5,1(2(4:3(1)	Career design and repairation	Class 1	1,122	4.018	.025	65.485*** (1,3,5,6(2(4)
	Class 2	1,664	4.477	.016			Class 2	1,664	4.170	.020	
	Class 3	617	4.358	.028			Class 3	617	4.030	.036	
	Class 4	986	4.552	.020			Class 4	986	4.268	.026	
	Class 5	839	4.406	.023			Class 5	839	4.064	.031	
	Class 6	358	4.377	.036			Class 6	358	4.069	.045	
	Class 1	1,122	4.332	.020			Class 1	1,122	3.557	.024	
Job understanding	Class 2	1,664	4.393	.017	36.504*** (3,6,5,1(2(4)	Autonomous learning motivation	Class 2	1,664	3.622	.019	32.714*** (3,6,1,5(4:3,1(2:3(1,5)
	Class 3	617	4.268	.029			Class 3	617	3.446	.031	
	Class 4	986	4.441	.022			Class 4	986	3.639	.025	
	Class 5	839	4.322	.025			Class 5	839	3.568	.028	
	Class 6	358	4.295	.035			Class 6	358	3.539	.044	
	Class 1	1,122	3.846	.028			Class 1	1,122	3.612	.027	
	Class 2	1,664	3.998	.023			Class 2	1,664	3.761	.023	
Career exploration	Class 3	617	3.820	.040	61.283*** (3,6,1,5(2(4)	Self-directed learning	Class 3	617	3.562	.038	40.364*** (3,6,1,5(2(4)
	Class 4	986	4.089	.029			Class 4	986	3.764	.029	
	Class 5	839	3.887	.036			Class 5	839	3.642	.033	
	Class 6	358	3.828	.053			Class 6	358	3.599	.051	

* p<.05, ** p<.01, *** p<.001

Table 4. Comparisons (with the BCH procedure) across the six-class profiles (Middle school)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Class 1	782	3.814	.029	993.164*** (15.2<4.3<6)	Career design and reparation	Class 1	782	3.415	.033	1123.990*** (12.5<4.3<6)
	Class 2	1,406	3.952	.021			Class 2	1,406	3.589	.023	
	Class 3	747	4.433	.025			Class 3	747	4.142	.032	
	Class 4	1,354	4.361	.020			Class 4	1,354	4.140	.025	
	Class 5	591	3.929	.033			Class 5	591	3.649	.038	
	Class 6	931	4.609	.019			Class 6	931	4.426	.024	
Job understanding	Class 1	782	3.574	.031	918.788*** (15.2<4.3<6)	Autonomous learning motivation	Class 1	782	3.066	.022	189.575*** (15.2<4.3<6)
	Class 2	1,406	3.699	.022			Class 2	1,406	3.216	.018	
	Class 3	747	4.187	.029			Class 3	747	3.358	.027	
	Class 4	1,354	4.147	.023			Class 4	1,354	3.352	.021	
	Class 5	591	3.681	.036			Class 5	591	3.182	.027	
	Class 6	931	4.417	.023			Class 6	931	3.458	.027	
Career exploration	Class 1	782	3.603	.030	896.648*** (12.5<4.3<6)	Self-directed learning	Class 1	782	3.227	.035	798.298*** (15.2<4.3<6)
	Class 2	1,406	3.794	.022			Class 2	1,406	3.476	.023	
	Class 3	747	4.237	.029			Class 3	747	3.930	.033	
	Class 4	1,354	4.228	.022			Class 4	1,354	3.877	.027	
	Class 5	591	3.804	.035			Class 5	591	3.418	.039	
	Class 6	931	4.467	.023			Class 6	931	4.202	.028	

* p<.05, ** p<.01, *** p<.001

중학생의 경우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과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의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

학업적 특성의 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 모두 잠재계층 6(자녀 최상-부모 최상), 3(자녀 상-부모 하), 4(자녀 상-부모 중상) 집단이 잠재계층 1(자녀 하-부모 하), 5(자녀 하-부모 상), 2(자녀 중-부모 중) 집단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Comparisons (with the BCH procedure) across the seven-class profiles (High school)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Variables	Latent Classes	N	M	S.E.	χ^2
Self-understanding and social competence	Class 1	629	3.895	.032	708.460*** (5<3.1,4<6.2<7)	Career design and reparation	Class 1	629	3.443	.037	691.934*** (5.1<4.3<6.2<7)
	Class 2	608	4.241	.031			Class 2	608	3.993	.034	
	Class 3	1,316	3.862	.023			Class 3	1,316	3.613	.023	
	Class 4	475	3.905	.037			Class 4	475	3.592	.040	
	Class 5	932	3.674	.027			Class 5	932	3.385	.029	
	Class 6	1,442	4.204	.020			Class 6	1,442	3.915	.022	
	Class 7	777	4.458	.025			Class 7	777	4.229	.030	
Job understanding	Class 1	629	3.431	.034	786.874*** (1.5<3.4<6<2<7)	Autonomous learning motivation	Class 1	629	3.323	.028	97.217*** (4.5<3.1,6<7; 4.5<3<2)
	Class 2	608	4.036	.033			Class 2	608	3.394	.030	
	Class 3	1,316	3.632	.023			Class 3	1,316	3.296	.019	
	Class 4	475	3.640	.041			Class 4	475	3.195	.029	
	Class 5	932	3.449	.027			Class 5	932	3.202	.021	
	Class 6	1,442	3.949	.021			Class 6	1,442	3.371	.019	
	Class 7	777	4.263	.028			Class 7	777	3.472	.027	
Career exploration	Class 1	629	3.429	.035	651.025*** (5.1<4.3<6.2<7)	Self-directed learning	Class 1	629	3.458	.037	446.805*** (5<4.3,1,<6<2<7)
	Class 2	608	3.913	.035			Class 2	608	3.834	.036	
	Class 3	1,316	3.545	.022			Class 3	1,316	3.444	.024	
	Class 4	475	3.544	.039			Class 4	475	3.438	.043	
	Class 5	932	3.339	.027			Class 5	932	3.306	.028	
	Class 6	1,442	3.860	.021			Class 6	1,442	3.742	.023	
	Class 7	777	4.141	.030			Class 7	777	4.000	.031	

* p<.05, ** p<.01, *** p<.001

고등학생의 경우 잠재계층에 따라 진로개발역량(자기 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과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개발역량의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 모두 잠재계층 7(자녀 최상-부모 최상), 2(자녀 상-부모 하), 6(자녀 상-부모 중상) 집단이 잠재계층 4(자녀 중-부모 상), 1(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3(자녀 중-부모 중), 5(자녀 하-부모 하) 집단 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특성의 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 모두 잠재계층 7 집단이 1, 3, 4, 5 집단 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및 결론

부모와 자녀는 종종 부모의 양육 행동에 대한 다른 인식을 보고하는데, 이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를 반영한 결과일 수 있다[10]. 특히 부모-자녀 간 인식 차이는 자녀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3, 4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 학생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특징을 갖는 유형을 탐색하고, 탐색된 유형에 따라 초, 중, 고 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학업적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나의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꿈), 학교 및 학과 선택, 공부(학습)와 성적의 4개 영역에 대한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의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6개 잠재계층 모형, 고등학생은 7개 잠재계층 모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의 구체적인 6개 프로파일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은 전체의 1,122명(20.1%)이며, 자녀가 인식한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관련 대화 빈도만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상-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 집단은 전체의 1,664명(29.8%)이며, 자녀는 학교생활, 진로, 공부(학습)와 성적 관련 대화 빈도가 모두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학교생활 관련 대화 빈도만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하-부모 하 집단'은 전체의 617명(11.0%)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4개 영역의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잠재

계층인 '자녀 상-부모 상 집단'은 전체의 986명(17.7%)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4개 영역의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은 전체의 839명(15.0%)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학교생활 관련 대화 빈도만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여섯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하-부모 중 집단'은 전체의 358명(6.4%)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중학생의 구체적인 6개 프로파일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하-부모 하 집단'은 전체의 782명(13.5%)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4개 영역의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중-부모 중 집단'은 전체의 1,406명(24.2%)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4개 영역의 대화 빈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상-부모 하 집단'은 전체의 747명(12.9%)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상-부모 중상 집단'은 전체의 1,354명(23.3%)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중간 이상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하-부모 상 집단'은 전체의 591명(10.2%)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여섯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최상-부모 최상 집단'은 전체의 931명(16.0%)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4개 영역의 대화 빈도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고등학생의 구체적인 7개 프로파일의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은 전체의 629명(10.2%)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관련 대화 빈도만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상-부모 하 집단'은 전체의 608명(9.8%)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중-부모 중 집단'은 전체의 1,316명(21.3%)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4개 영역의 대화 빈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네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중-부모 상 집단'은 전체의 475명(7.7%)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중간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높은 수

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다섯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하-부모 하 집단'은 전체의 932명(15.1%)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4개 영역의 대화 빈도가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여섯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상-부모 중상 집단'은 전체의 1,442명(23.3%)이며, 자녀는 부모와의 대화 빈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반면, 부모는 대화 빈도가 중간 이상 수준이라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일곱 번째 잠재계층인 '자녀 최상-부모 최상 집단'은 전체의 777명(12.6%)이며, 자녀와 부모 모두 4개 영역의 대화 빈도가 매우 높다고 인식하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잠재계층의 특징 중 하나는 초, 중, 고등학생 집단 모두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 인식이 불일치한 집단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양육 특성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인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2-3]. 본 연구 결과는 부모 또는 자녀의 단일 정보원만으로는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둘째, 초등학생의 경우 중, 고등학생보다 학교생활(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등) 영역의 대화 빈도만 높은 잠재계층이 두드러지게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흥미와 적성, 희망 직업(꿈), 학교 및 학과 선택' 등의 진로와 관련된 부모와의 대화가 적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부터 진로와 관련된 태도 및 역량을 형성하는 것이 진로발달에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49],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관련 대화의 중요성 인식 및 진로 지도 방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모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와 자녀 모두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한 잠재계층이 초등학생 617명(11.0%), 중학생 782명(13.5%), 고등학생 932명(15.1%)으로 확인되었으며, 자녀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한 잠재계층의 비율이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부모-자녀 간 대화는 부모-자녀 간 건강한 관계를 향상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와 자녀 모두 대화 빈도가 낮다고 인식하는 집단을 확인하고,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의 지원체계가 확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기초한 잠재계층에 따라 초, 중, 고 학생 모두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과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의 경우 잠재계층 4(자녀 상-부모 상) 집단이 잠재계층 3(자녀

하-부모 하), 6(자녀 하-부모 중), 5(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1(자녀 학교생활 대화 상) 집단보다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과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의 경우 잠재계층 6(자녀 최상-부모 최상), 3(자녀 상-부모 하), 4(자녀 상-부모 중상) 집단이 잠재계층 1(자녀 하-부모 하), 5(자녀 하-부모 상), 2(자녀 중-부모 중) 집단보다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과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잠재계층 7(자녀 최상-부모 최상), 2(자녀 상-부모 하), 6(자녀 상-부모 중상) 집단이 잠재계층 4(자녀 중-부모 상), 1(자녀-부모 학교생활 대화 상), 3(자녀 중-부모 중), 5(자녀 하-부모 하) 집단보다 진로개발역량(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준비도)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잠재계층 7(자녀 최상-부모 최상) 집단이 1, 3, 4, 5 집단 보다 학업적 특성(자율적 학습 동기, 자기주도학습)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학습동기[28-30], 자기주도학습[33], 학업성취[34-35], 진로개발역량[43]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자기결정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유능성, 자율성, 관계성의 욕구가 충족될 때 내재적 동기가 발현되게 되는데[50], 부모-자녀 간 대화를 통해 강화된 부모-자녀 간 친밀감은 관계성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개방적이고 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부모-자녀 간 유대감, 신뢰감을 향상시킴으로써, 학습 및 진로 탐색 등의 다양한 도전 상황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부모와의 대화 과정에서 진로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진로계획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진로개발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 중, 고 학생의 부모-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특징을 갖는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잠재계층을 탐색하였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 발달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

려할 때 어머니-아버지-자녀 간 대화 빈도에 대한 인식 차이에 따른 잠재계층을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M. Van Heel, P. Bijttebier, H. Colpin, L. Goossens, W. Van Den Noortgate, K. Verschueren, K. Van Leeuwen, "Adolescent-parent discrepancies in perceptions of parenting: Associations with adolescent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8, No.11, pp.3170-3182, 2019.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9-01493-7>
- [2] D. Choe, "Parents' and adolescents' perceptions of parental support as predictors of adolesc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116, 105172, 2020.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20.105172>
- [3] C. M. Ohannessian, J. V. Lerner, R. M. Lerner, A. von Eye, "Adolescent-parent discrepancies in perceptions of family functioning and early adolescent self-compet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24, pp.362-372, 2000. DOI: <https://doi.org/10.1080/01650250050118358>
- [4] A. De Los Reyes, K. L. Goodman, W. Kliewer, K. Reid-Quinones, "The longitudinal consistency of mother-child reporting discrepancies of parental monitoring and their ability to predict child delinquent behaviors two years late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39, pp.1417-1430, 2010. DOI: <https://doi.org/10.1007/s10964-009-9496-7>
- [5] Y. Han, A. Grogan-Kaylor, C. Bares, J. Ma, M. Castillo, J. Delva, "Relationship between discordance in parental monitoring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Chilea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34, No.4, pp.783-789, 2012. DOI: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2.01.005>
- [6] J. W. K. Yeung, "Parenting discrepancies in the aggregate parenting context and positive child outcomes in Chinese parent-child dyad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98, pp.107-113, 2016. DOI: <https://doi.org/10.1016/j.paid.2016.03.064>
- [7] S. Kapetanovic, K. Boson, "Discrepancies in parents' and adolescents' reports o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ssociations to adolescents' psychological health", *Current Psychology*, 2020. DOI: <https://doi.org/10.1007/s12144-020-00911-0>
- [8] Y. Hou, S. Y. Kim, A. D. Benner, "Parent-adolescent discrepancies in repor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 outcomes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7, No.2, pp.430-444, 2018.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7-0717-1>
- [9] F. Penner, S. Vanwoerden, J. Borelli, C. Sharp, "Discrepancies in mother-adolescent reports of parenting practices in a psychiatric sample: Associations with age, psychopathology, and attachmen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Vol.48, pp.343-360, 2020. DOI: <https://doi.org/10.1007/s10802-019-00589-4>
- [10] K. E. Korelitz, J. Garber, "Congruence of parents' and children's perceptions of parenting: A meta-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5, pp.1973-1995, 2016.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6-0524-0>
- [11] E. H. Yaban, M. Sayil, Y. K. Tepe, "Are discrepancies in perceptions of psychological control related to maladjustment? A study of adolescents and their parents in Turke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Vol.38, No.6, pp.550-562, 2014. DOI: <https://doi.org/10.1177/0165025414537880>
- [12] B. López-Pérez, E. L. Wilson, "Parent-child discrepancies in the assessment of children's and adolescents' happines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Vol.139, pp.249-255, 2015. DOI: <https://doi.org/10.1016/j.jecp.2015.06.006>
- [13] M. M. E. M. van Doorn, D. Bodden, M. Jansen, R. M. Rapee, I. Granic, "Linking mother-child discrepancies to behavioral observations of children's anxiety", *Child & Youth Care Forum*, Vol.47, No.4, pp.481-498, 2018. DOI: <https://doi.org/10.1007/s10566-018-9441-6>
- [14] J. H. Lee, E. M. Mun, "The effects of decision scale from parental career support to juveniles as perceived by both",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18, No.2, pp.211-226, 2011.
- [15] S. J. Ryu, "Effects of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parent and child in their communication practices on child's emotion regulation capacity and cognitive communication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60, No.6, pp.100-126, 2016. DOI: <https://doi.org/10.20879/kjics.2016.60.6.004>
- [16] S. Mastrotheodoros, J. Van der Graaff, M. Deković, W. H. J. Meeus, S. Branje, "Parent-adolescent conflict across adolescence: Trajectories of informant discrepancies and associations with personality typ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9, No.1, pp.119-135, 2020.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9-01054-7>
- [17] J. T. Y. Leung, D. T. L. Shek, "Parent-child discrepancies in perceived parental sacrifice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Chinese adolescents experiencing economic disadvantage", *Child Indicators Research*, Vol.9, pp.683-700, 2016. DOI: <https://doi.org/10.1007/s12187-015-9332-4>
- [18] B. Lv, H. Zhou, C. Liu, X. Guo, C. Zhang, Z. Liu, L. Luo,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discrepancies

- in educational aspirations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role of children's academic self-efficac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Vol.86, pp.296-301, 2018.
DOI: <https://doi.org/10.1016/j.childev.2018.02.010>
- [19] J. T. Y. Leung, D. T. L. Shek, "Parent-adolescent discrepancies in perceived parenting characteristics and adolescent developmental outcomes in poor Chinese famili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Vol.23, No.2, pp.200-213, 2014.
DOI: <https://doi.org/10.1007/s10826-013-9775-5>
- [20] L. M. Dimler, M. N. Natsuaki, P. D. Hastings, C. Zahn-Waxler, B. Klimes-Dougan, "Parenting effects are in the eye of the beholder: Parent-adolescent differences in perceptions affects adolescent externalizing behavi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46, No.5, pp.1076-1088,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964-016-0612-1>
- [21] Y. S. Kim, H. J. Shin,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parents-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kills",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20, No.3, pp.253-275, 2014.
- [22] G. D. Park, S. Y. Lee, "The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on friendship -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parent and child -",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4, No.2, pp.249-270, 2017.
- [23] E. J. Lee, H. S. Shin, "Children's emotion awareness and regulation as mediators in the associations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The 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Vol.25, No.2, pp.293-312, 2016.
DOI: <https://doi.org/10.17643/KJCE.2016.25.2.15>
- [24] J. I. Yuh, "The effects of loneliness, family cohesion, family conflict,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martphone addiction symptom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9, No.3, pp.175-192, 2014.
- [25] Y. M. Yang, S. E. Hong, "The relations between parent-child communication, adolescent depression, and ego-resilience", *Korean Journal of Parents and Guardians*, Vol.5, No.1, pp.77-95, 2018.
- [26] M. J. Won, Y. J. Gong, "The mediation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erceived marital conflict and self-esteem",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16, No.3, pp.285-299, 2017.
- [27] H. R. Yoon, S. J. Ahn, S. H. Kim,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ld-perceived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the peer relationship", *The Korean Journal of East West Mind Science*, Vol.20, No.1, pp.33-45, 2017.
- [28] H. J.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facilitative communication and children's learning motivation", *The Journal of Humanities Studies*, Vol.35, No.1, pp.327-351, 2008.
- [29] E. S. Jung, J. W. Jung, "The effect of parent-child and teacher-student communication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 on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o learn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Research in Education*, Vol.30, No.3, pp.77-102, 2017.
- [30] H. J. Jung, H. J. Moon, "Correlates of children's achievement motivation: Mother's conversation pattern, maternal emotional support, and children's self-esteem",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29, No.5, pp.107-119, 2011.
- [31] S. B. Kim, B. R. Hwang, Y. O. Nam,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school student: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25, No.2, pp.231-251, 2017.
DOI: <https://doi.org/10.35151/kyci.2017.25.2.011>
- [32] H. S. Jung, M. A. Cho, "Relationship between father & mother-child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strateg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21, No.12, pp.153-182, 2014.
- [33] Y. H. Seongok, H. J. Lim, W. S. Seo, "The structural relations amo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career education experience, parent support and self-directed learning of the Korean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3, No.2, pp.133-155, 2020.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0.6.33.2.133>
- [34] X. Guo, B. Lv, H. Zhou, C. Liu, J. Liu, K. Jiang, L. Luo, "Gender differences in how family income and parental education relate to reading achievement in China: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expectation and parental involvement", *Frontiers in Psychology*, Vol.9, Article 783, 2018.
DOI: <https://doi.org/10.3389/fpsyg.2018.00783>
- [35] H. Park, "The varied educational effects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fourteen countries", *Comparative Education Review*, Vol.52, No.2, pp.219-243, 2008.
DOI: <https://doi.org/10.1086/528763>
- [36] Y. Zhang, "Quality matters more than quantity: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academic performance", *Frontiers in Psychology*, Vol.11, Article 1203, 2020.
DOI: <https://doi.org/10.3389/fpsyg.2020.01203>
- [37] E. S. Lee, M. J. Kim, "The relation between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career barrier",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4, pp.49-68, 2017.
- [38] J. O. Park, E. J. Oh,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life satisfaction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Youth Facilities and Environment*, Vol.16, No.2, pp.93-103, 2018.

- [39] E. T. Lee, J. H. Choi,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relationship, career conversation and career decision perceived by high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0, No.1, pp.47-66, 2017.
- [40] H. S. Kim, S. T. Moon, "The influences of communications with parents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career conscientiousness amo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24, No.2, pp.183-195, 2011.
- [41] K. B. Yun, "The effect of mothers' grit on adolescents' gri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parental attitudes by parent-adolescent conversation time",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38, No.2, pp.15-28, 2020.
DOI: <https://doi.org/10.7466/JKHMA.2020.38.2.15>
- [42] K. J. Um, C. Y. Yun, "The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conversation time on problem behaviors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7, No.9, pp.595-615, 2017.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7.17.9.595>
- [43] Y. C. Le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career satisfaction, participation in conversation with par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13, No.2, pp.83-111, 2020.
- [44] S. H. Jeong, "The effect of family background and primary caregiver-child talk on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4, No.4, pp.31-55, 2013.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13.44.4.31>
- [45] https://mdis.kostat.go.kr/extract/extYears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012
- [46] T. Asparouhov, B. Muthén,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Vol.21, No.3, pp.329-341, 2014.
DOI: <https://doi.org/10.1080/10705511.2014.915181>
- [47] H. Y.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Latent profiles and their predictor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21, No.2, pp.35-58, 2020.
DOI: <https://doi.org/10.15703/kjc.21.2.202004.35>
- [48] E. M. Parker, S. R. Lindstrom Johnson, V. C. Jones, D. L. Haynie, T. L. Cheng, "Discrepant perspectives on conflict situations among urban parent-adolescent dyad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31, No.6, pp.1007-1025, 2016.
DOI: <http://dx.doi.org/10.1177/0886260514564064>
- [49] H. J. Jang, "The effects of school career education and parents on the career development competenc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31, No.1, pp.89-109, 2018.
DOI: <http://dx.doi.org/10.24062/kpae.2018.31.1.89>
- [50] R. M. Ryan, E. L. Deci,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25, No.1, pp.54-67, 2000.
DOI: <http://doi.org/10.1006/ceps.1999.1020>

연 은 모(Eun Mo Yeon)

[정회원]



- 2007년 5월 : 버지니아 주립대 (Univ. of Virginia) 국제관계학 학사
- 2009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방법 석사)
- 2014년 8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영남대학교 교양학부 부교수

<관심분야>

진로상담, 실수기반학습, 학습동기

최 호 식(Hyo-Sik Choi)

[정회원]



- 200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석사)
- 201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 박사)
- 2016년 9월 ~ 현재 :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심리검사, 학습전략, 부모-자녀 관계